



영광 범성포 굴비

글 · 사진 · 김숙현(여행작가 pararang@empal.com)

전남 영광은 굴비로 유명한 고장이다. 영광에서도 범성포에서 생산되는 굴비를 최고로 친다. 칠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씨알 굵은 참조기를 범성포로 가지고 들어와 이곳에서 부는 하늬바람에 말려 천일염으로 염장한 것이 영광굴비다. 영광에는 불갑사를 비롯해 원불교 성지, 가마미 해수욕장, 송이도 해수욕장 등이 볼거리다.

불갑산(516m)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불갑사는 백제 침류왕(384년) 때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불법도량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절 이름을 불갑사라 하였다. 영광의 범성포라는 지명도 성인이 법을 가지고 들어온 포구였다고 해서 '부용포'라는 이름에서 바뀌었다 한다.

사찰 입구의 돌계단을 올라 처음 마주하는 천왕문 안에는 신라 진흥왕 때 연기조사가 목각하고 고종 1년에 설두선사가 불갑사를 중수하면서 폐사된 전북 무장연기사에서 옮겨 왔다고 전해지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 우측에는 1층과 2층에 각각 종과 북이 걸린 육각 누각이 있고, 그 누각 옆에 참식나무 한 그루가 있다.

보물 제83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 모두, 가운데 칸의 세짝 문을 연화문과 국화문으로 장식했고, 좌우칸에는 소슬 빗살 무늬로 처리하여 분위기가 매우 화사하다.

불갑사 안에는 만세루, 명부전, 일광당 그리고 요사채가 있고, 절 뒤에는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참식나

무 군락이 있다. 녹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활엽수로 10월이나 11월에 암꽃과 수꽃이 각각 딴 그루에서 피며, 다음해 10월쯤에 열매가 갈게 익어 꽃과 열매를 함께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주변에 용천사, 내산서원, 불갑산, 수도사, 원불교 성지 등이 있다.

원불교 성지

원불교 성지는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에 위치하고 있다. 원불교는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영촌마을에서 태어난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이 창시한 종교로 세계에 500여 개의 교당과 100만 신도가 있다고 한다.

원불교에서 일컫는 성지는 소태산 대종사가 탄생하여 개교한 영광의 영산성지인 이곳과, 교화의 장을 연 익산성지(익산시 신룡동), 교리를 초안하고 교강을 발표한 벽산성지 등이 있다. 개법성지인 이곳에는 대종사의 생가, 기도터인 삼발재, 마당바위, 대각을 이룬 노루목,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막아 이룬 정관평 방언담 등이 있어 성지순례차 전국의 많은 교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온다.



분다는 하늬바람에 말려 천일염으로 염장한 것이 옛날식 영광굴비다.

요즘은 예전처럼 오래 말리지 않고 물기만 뺀 다음 바로 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고추장 굴비(굴비장아찌)를 만들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말려 겹질을 벗기고 가시와 내장을 제거해 손가락 크기로 찢어서 사용한다. 말리는 시간과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리지 않은 굴비에 비해 더 비싸게 친다.

굴비정식을 시키면 굴비도 굴비지만 상을 가득 메우는 남도의 반찬 가짓수에 놀란다. 굴비구이와 굴비 매운탕, 고추장 굴비 외에 간장게장, 고추장게장, 생선구이, 젓갈, 김치, 나물무침 등 거하게 차려준다.

법성포 굴비정식으로 유명한 '일번지'

영광 여행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영광굴비'를 맛보는 일이다.

영광굴비 정식을 하는 집은 영광 시내는 물론이고 법성포구를 따라 쪽 줄을 섰다. 그 가운데 법성포 굴비거리는 영광 시내 농협과 중앙의원 삼거리에서 영익약국을 낀 골목에 위치한다. 약 600m 정도 굴비상점들이 늘어서 관광객을 유혹한다. 그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일번지 식당을 추천한다.

10년 전쯤 이곳에 문을 연 '일번지' 식당의 메뉴는 단 하나 굴비정식이다. 6만원 정식과 4만5,000원 정식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6만원 정식은 굴비에 회, 새우 등 다양한 요리가 나온다. 4인 이상이 한 상에 앉는다면 6만원 정식을 추천할 만하다. 4인 이하면 4만5,000원 정식으로 도 충분하다.

주 메뉴인 굴비 맛은 일단 합격. 함께 나오는 매운탕이 약간 떨어진다. 하지만 굴비와 함께 나오는 병어찜, 홍어 무침, 갈치튀김, 가오리, 장대 등의 생선 맛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 ☺

실용정보

교 통 - 서해안고속도로 영광나들목을 나오면 법성포 가는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따라 가다가 법성포 사거리가 나오면 거기서 400m 직진하면 된다. 나들목을 빠져나와서 좌회전 하다 조금 가다 보면 검문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영광 여행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일번지식당 - 오전 11시30분~오후 8시30분까지, 400석 규모, 굴비한정식 45,000원, 60,000원. ☎061-356-2268

가마미 해수욕장

영광에서 서쪽으로 24km 지점에 금정산을 배경으로 위치한 가마미 해수욕장은 물이 깨끗하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다.

길이 1km, 폭 200m의 백사장이 반달 모양으로 둥그렇게 자리하고 있고, 200여 그루의 울창한 소나무 숲이 길게 펼쳐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심 1~2m에 물도 맑고 좋아 호남 3대 해수욕장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곳은 모래찜질을 하기에 좋다고 한다. 앞바다에는 크기, 모양이 거의 같은 7개의 섬이 나란히 일자형으로 수평선 위에 떠 있는데, 이것이 칠산도이다. 수평선 너머 띄엄띄엄 널려있는 섬들, 그 사이에 한가로이 떠 있는 어선이 운치 있다.

영광 법성포 굴비

영광굴비는 영광 전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법성포에서만 난다. 칠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씨알 굵은 참조기를 법성포로 가지고 들어와 이곳에서만